제203호(2022. 1. 19.)
KREI 농정포커스

2021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정도채·박혜진

요 약

국민들은 농업·농촌의 중요한 기능으로 '식량 공급'을 꼽았으며, 농업·농촌이 공익적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

-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농업·농촌이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선택함. 조사 결과, 농업인과 도시민의 80% 이상이 향후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인식함.
- 도시민 상당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조세 부담 의사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도시민의 34.4%는 향후 귀농·귀촌 희망, 거주 형태는 도시와 농촌 복수 거주 선호

- 도시민 응답자의 34.4%는 향후 '귀농·귀촌을 희망'하며, 희망 사유로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와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를 가장 많이 선택함.
- 귀농·귀촌 시 농촌으로의 영구 이주보다 도시와 농촌 모두에 주거를 두는 '복수거점 생활'을 선호함.

농업인들은 생활 수준이 개선되는 것으로 인식, 농업경영 관련 주된 위협요소로 '일손 부족', '농업생산비 증가'를 응답

- 농촌에서의 생활 수준이 개선되고 있다고 응답한 농업인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일손 부족', '농업생산비 증가'가 농업경영에 위협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응답한 농업인 비율이 증가함.

2021년 농식품 주요 이슈로 도시민은 '농산물 가격 안정', 농업인은 '농민수당'을 응답

- 도시민과 농업인이 공통적으로 관심이 많았던 농식품분야 이슈는 '자연재해'와 '기후변화'로 나타남.
- 농업인은 전년 대비 '농민수당' 및 '농산물 가격 안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

01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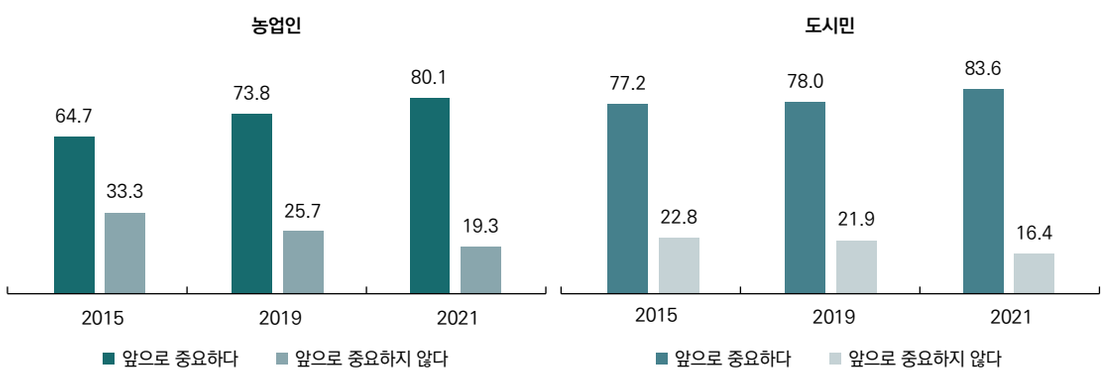
1.1. 농업·농촌의 중요한 기능

도시민·농업인 모두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앞으로 중요하다'는 인식 비율은 농업인 80.1%, 도시민 83.6%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향후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위상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함.

〈그림 1〉 연도별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도시민과 농업인의 견해

단위: %



주: '모름'과 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농업인의 53.2%와 도시민의 62.3%를 차지함.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중요해질 것이다'라는 응답은 농업인이 26.9%, 도시민 21.3%임.

〈표 1〉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

단위: %

항목	지금까지도 중요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중요하지 않을 것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중요할 것	지금까지는 중요하였지만, 앞으로는 덜 중요해질 것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	모름/무응답
농업인	8.4	26.9	10.9	53.2	0.6
도시민	4.1	21.3	12.3	62.3	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1). 국민의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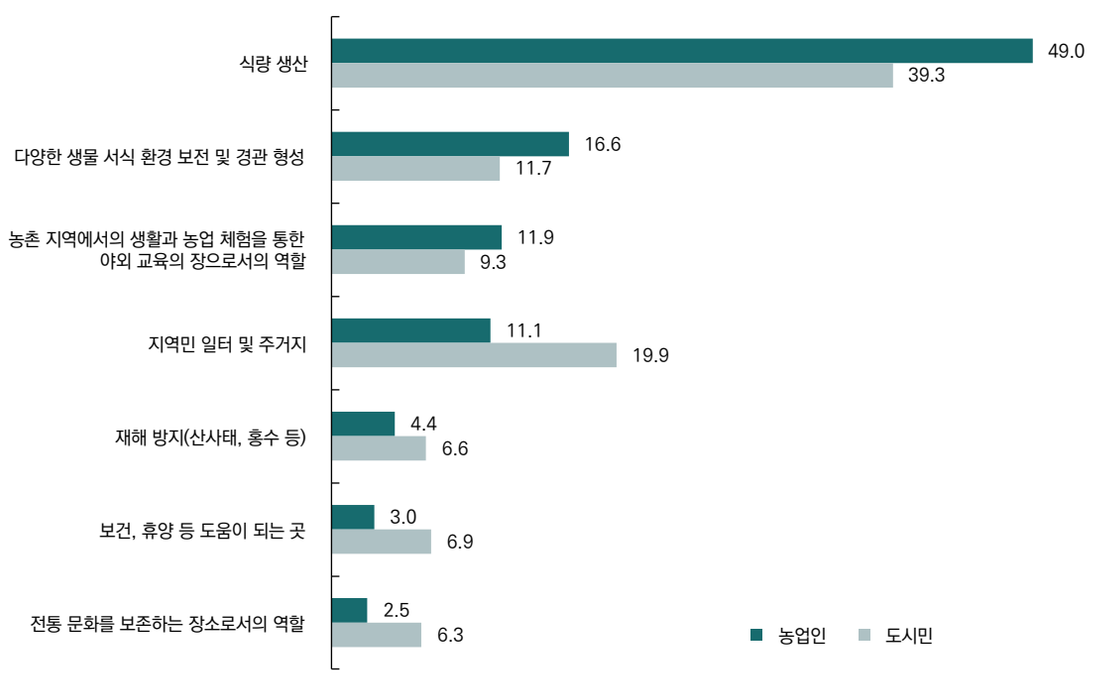
농촌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식량 생산' 꼽아

농촌이 가지는 역할 중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능에 대해 농업인(49.0%)과 도시민(39.3%) 모두 '식량 생산'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음.

- 도시민은 '지역민 일터 및 주거지', '다양한 생물 서식 환경 보전 및 경관 형성', '농촌 지역에서의 생활과 농업 체험을 통한 야외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함.
- 농업인은 '다양한 생물 서식 환경 보전 및 경관 형성', '농촌 지역에서의 생활과 농업 체험을 통한 야외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 '지역민 일터 및 주거지' 순으로 답변함.

〈그림 2〉 농촌의 중요한 역할 대한 농업인과 도시민의 견해

단위: %



주: '모름'과 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1). 국민의식조사.

1.2.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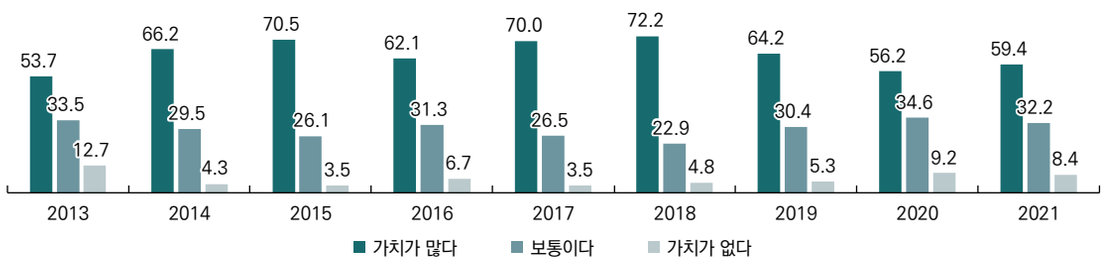
도시민 59.4%,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많다'

농업·농촌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 도시민 59.4%는 '가치가 많다'('다소 많다'와 '매우 많다'의 합산)고 응답함.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가지는 '가치가 많다'는 답변은 2020년 56.2%보다 3.2%p 증가하였으며, '보통이다'는 2020년 34.6%에서 2.4%p 감소한 32.2%임.

〈그림 3〉 연도별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여부에 대한 도시민의 견해

단위: %



주: '모름'과 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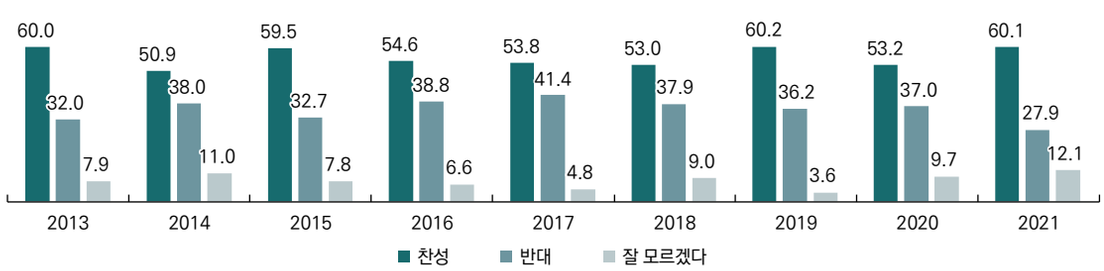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추가 세금 부담에 동의하는 도시민 비율 증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보전을 위한 납세자의 추가 세금 부담 여부에 대해 도시민의 60.1%가 '찬성'한다고 응답함.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추가 세금 부담에 대한 '찬성' 답변은 2020년 53.2%보다 6.9%p 증가하였으며, '반대' 답변은 2020년 37.0%보다 9.1%p 감소함.

〈그림 4〉 연도별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도시민의 추가 세금 부담 의향 변화

단위: %



주: '모름/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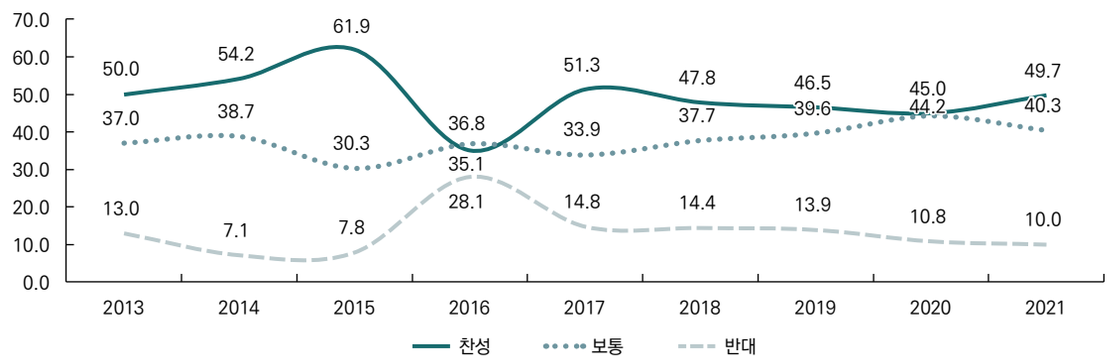
도시민,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액 및 농업인 대상 세제 혜택의 필요성에 공감

농촌복지와 관련한 예산 증대에 대해 도시민 49.7%가 '찬성한다'('찬성한다'와 '적극 찬성한다'의 합산)고 응답하여, '반대한다'('반대한다'와 '적극 반대한다'의 합산)는 응답보다 약 5배 높게 나타남.

-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액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2016년(28.1%)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그림 5〉 연도별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액에 대한 도시민의 견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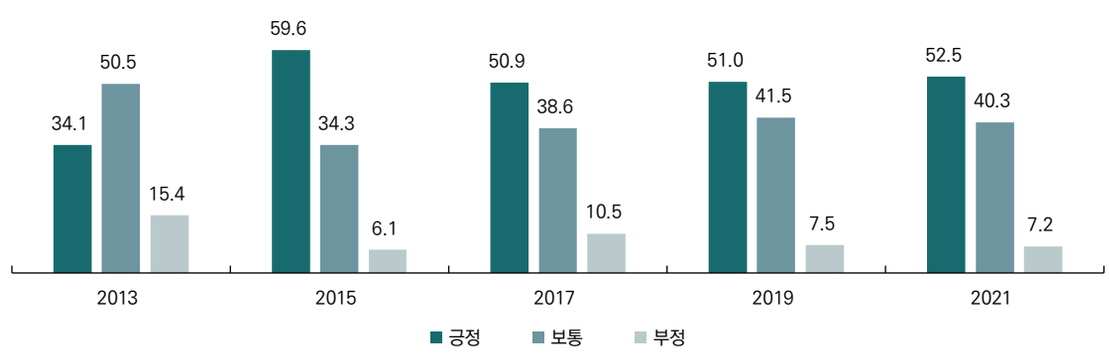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과반의 도시민들이 농업인에게 부여되고 있는 각종 세제 혜택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함.

- 현재 농업인에게 부여되고 있는 각종 세제 혜택(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면제 등)에 대해 도시민은 '긍정적이다' 52.5%, '부정적이다' 7.2%로 과반의 도시민들은 긍정적이라고 응답함.
-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은 2017년(50.9%)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보통이다'라는 의견도 증가 추세임.

〈그림 6〉 연도별 농업인에게 부여되는 각종 세제 혜택에 대한 도시민의 견해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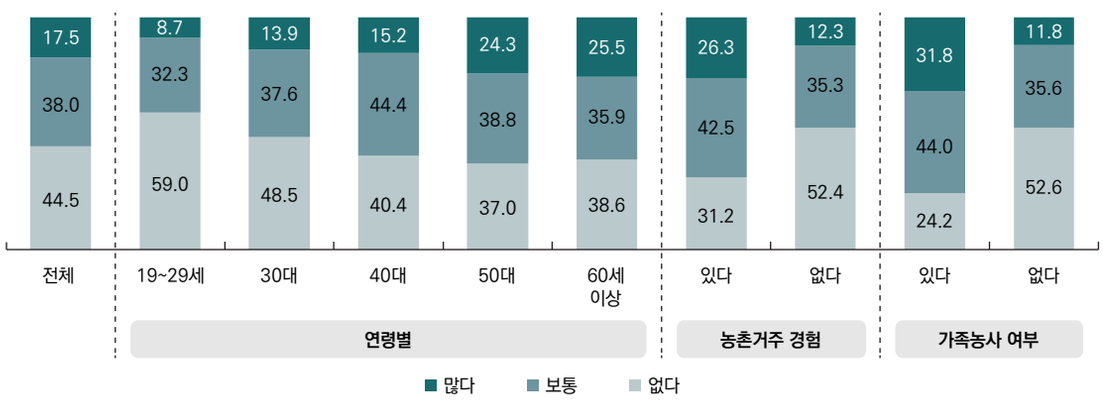
도시민 55.5%,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시 참여 의향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일정액을 납부하는 기부금의 일종으로 소득공제 외에 감사의 표시로 지역 특산품, 상품권 등의 답례품을 받는 제도인 '고향사랑기부제도'에 참여 의향이 있는 도시민 비율은 55.5%로 나타남.

- 도시민 중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6.3%에 불과하였으나,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도입 시 기부금을 낼 의향이 '있다'는 도시민은 17.5%, '보통'은 38.0%로 나타남.
- 기부금을 낼 의향이 '많다'는 응답은 60세 이상(25.5%), 주부(21.0%) 및 자영업(20.3%), 농촌 거주 경험자(26.3%), 농사를 짓는 가족이 있는 응답자(31.8%)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 7〉 고향사랑기부금 지불 의향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1). 국민의식조사.

1.3. 시사점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농업·농촌이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선택함. 동시에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식량 공급 외에도 생태·환경 보전, 여가·휴양 공간, 문화 보존 공간으로서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

도시민 상당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조세 부담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와 같이 농업·농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도 참여 의향을 가진 비율이 높게 나타나 제도 도입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보임.

02

도시민의 귀농·귀촌 및 농업인 생활 만족도

2.1. 도시민의 귀농·귀촌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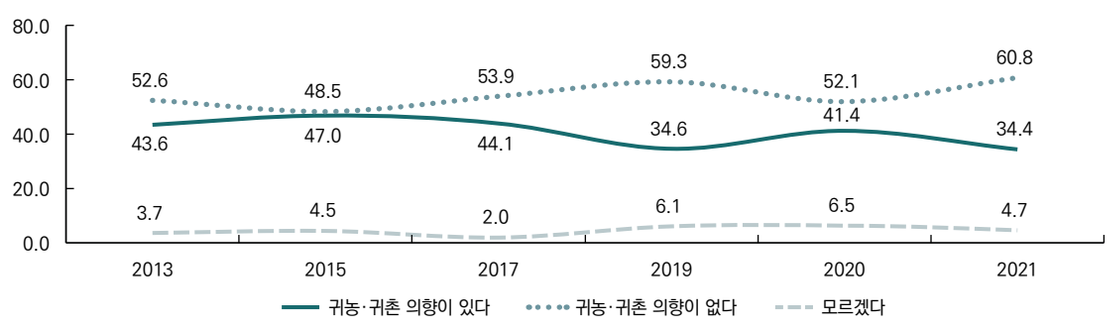
도시민의 1/3은 은퇴 후 귀농·귀촌을 희망

도시민들에게 은퇴 후 또는 여건이 될 때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있다'는 응답은 34.4%로 나타나 전년의 41.4%에 비해 7.0%p 감소함.

- 귀농·귀촌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나이가 많을수록, 농촌 거주 경험이 있거나 가족 중에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 8〉 귀농·귀촌 의향의 연도별 변화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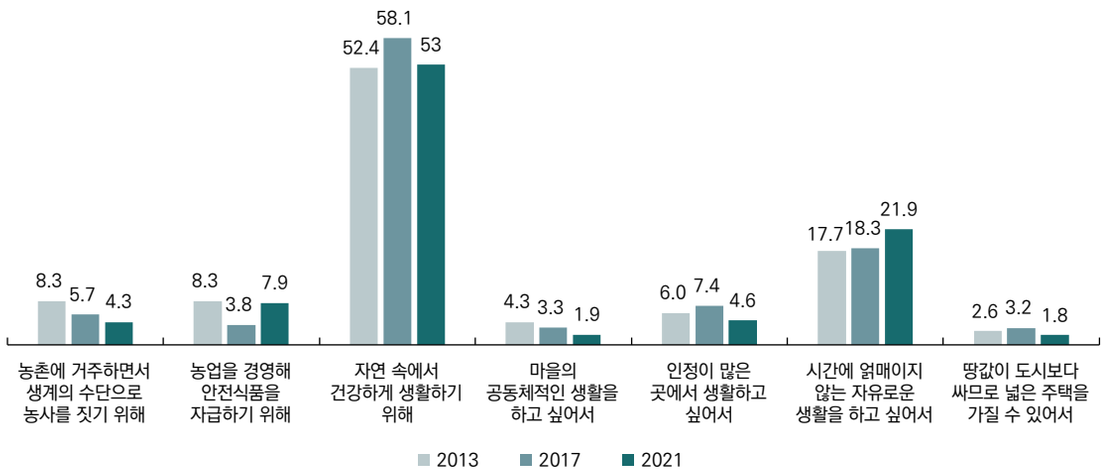
깨끗한 환경, 여유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비율 증가 추세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이유로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를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53.0%),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가 21.9%를 차지함.

- 전년보다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와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 항목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아진 반면, '농산물을 생산하여 안전한 식품을 자급하기 위해'와 '땅값이 도시보다 싸므로 넓은 주택을 가질 수 있어서' 항목에 대한 응답 비율은 낮아짐.

〈그림 9〉 귀농·귀촌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의 연도별 변화

단위: %



주: '기타'와 '무응답' 응답 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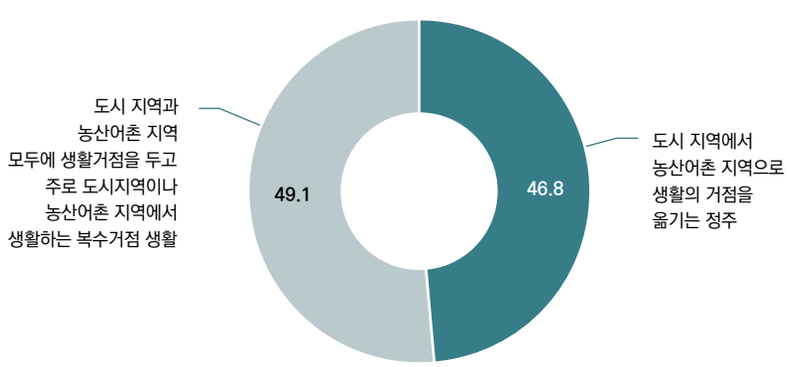
귀농·귀촌 이주 형태로 영구 이주보다는 '복수거점 생활' 선호

귀농·귀촌 의향이 있는 도시민들은 '도시 지역과 농산어촌 지역 모두에 생활거점을 두고, 도시 지역이나 농산어촌 지역에서 생활하는 복수거점 생활'(49.1%) 형태를 '도시 지역에서 농산어촌 지역으로 생활의 거점을 옮기는 정주'(46.8%) 형태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도시의 편리함과 농촌의 여유로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도시민들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임.

〈그림 10〉 귀농·귀촌 희망 시, 원하는 이주 형태

단위: %



주: '잘 모르겠다'와 '무응답' 응답 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1). 국민의식조사.

2.2. 농업인의 직업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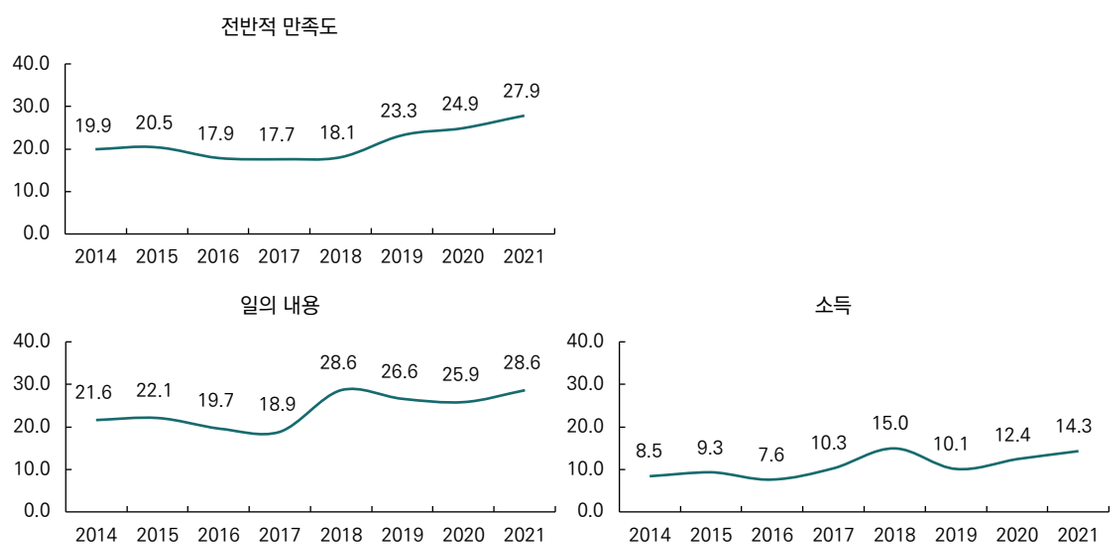
직업으로서 농업에 대한 만족도는 전년보다 소폭 증가

농업인의 직업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한다'('다소 만족'과 '매우 만족'의 합산)는 27.9%로 전년보다 3.0%p 증가하였고, '불만족한다'('다소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의 합산)는 23.0%로 전년보다 1.4%p 감소함.

- 농사일의 내용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28.6%로 전년보다 2.7%p 증가하였고, '불만족한다'는 응답도 21.3%로 전년보다 3.3%p 감소하여, 최근 5년간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농업 수입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14.3%로 전년보다 1.9%p 증가하였고,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43.1%로 전년보다 7.9%p 감소하였음.

〈그림 11〉 연도별 농업인 직업 만족도의 '만족' 응답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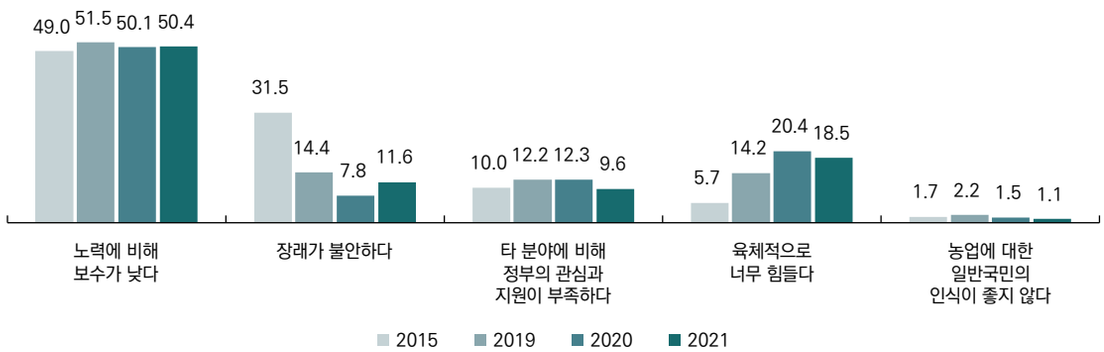
주: '만족'은 '다소 만족'과 '매우 만족'의 합산, 모름/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농업인의 경우, 경제적 이유로 직업에 대해 불만족하는 비율이 높음.

-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가 과반인 50.4%로 전년도(50.1%)와 비슷한 비율로 응답함.
-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18.5%로 전년의 20.4%에 비해 감소한 반면, '장래가 불안하다'는 11.6%로 전년의 7.8%에 비해 증가함.

〈그림 12〉 연도별 농업인의 직업 불만족 이유

단위: %



주: 모름/무응답, '기타' 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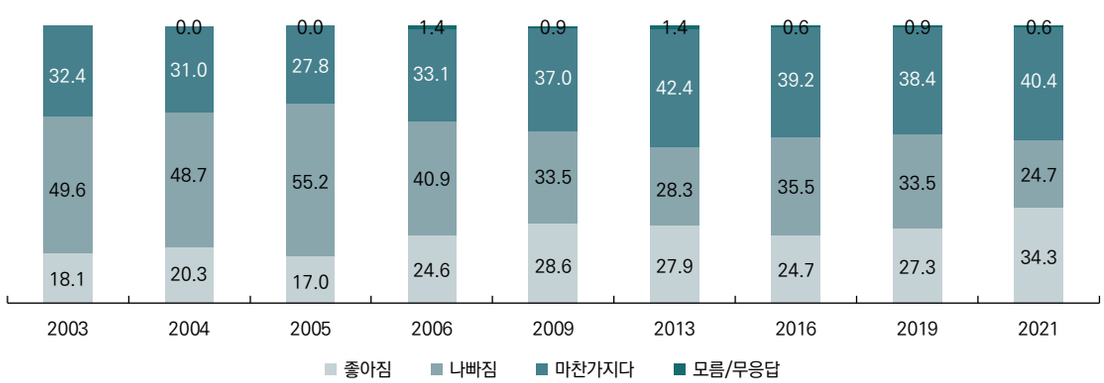
2.3. 농촌생활 만족도와 농업경영 위협 요인

농업인, 5년 전 대비 농촌 생활 '좋아졌다' 꾸준히 증가

5년 전과 비교한 올해의 농촌 생활 수준이 '좋아졌다'는 응답은 34.3%로 나타났으며, '나빠졌다' 24.7%, '마찬가지이다' 40.4%로 답변함. '좋아졌다'는 응답은 조사 시작 이래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34.3%)을 보였음.

〈그림 13〉 연도별 5년 전 대비 올해 농촌 생활 수준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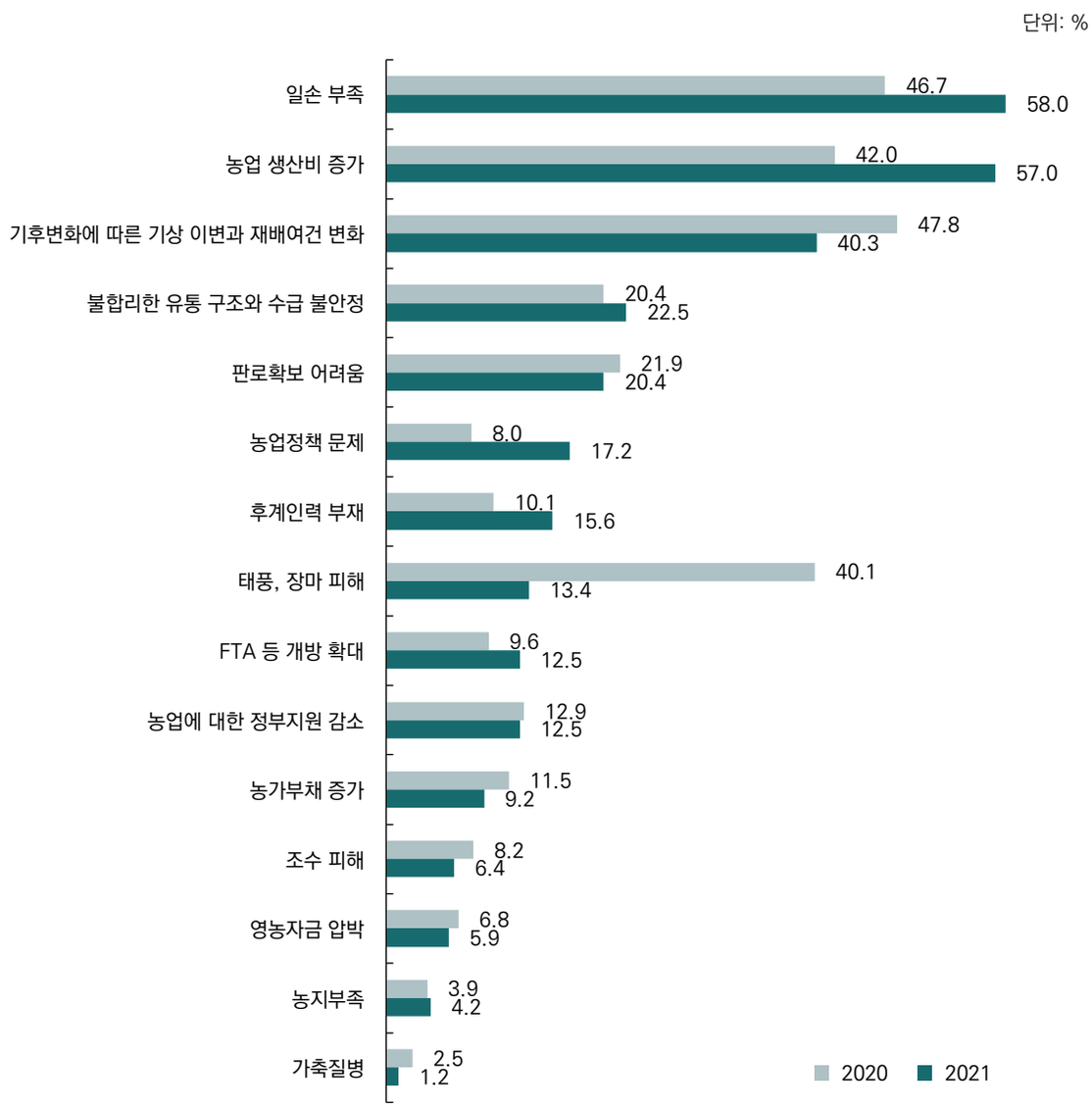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1). 국민의식조사.

농업경영의 가장 큰 위협 요소는 '일손 부족'과 '농업 생산비 증가'

농업인은 농업경영에 주된 위협 요소로 '일손 부족'(58.0%), '농업 생산비 증가'(57.0%),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과 재배여건 변화'(40.3%) 순으로 응답함.

- 전년에 비해 '농업 생산비 증가'와 '일손 부족', '수급 불안정'을 위협 요소로 인지한 농업인 비율이 증가함.
- 또한, 전년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과 재배여건 변화'를 위협 요소로 느끼는 농업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자연재해 감소 영향으로 '태풍, 장마 피해'는 전년(40.1%)과 비교해 올해 13.4%로 크게 감소(26.7%p)함.

〈그림 14〉 농업경영의 주된 위협 요소(복수응답)



주: '기타', '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2.4. 시사점

귀농·귀촌 희망자 중 농촌의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기대하는 도시민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영농 중심의 귀농 외에 농촌에서 다양한 삶을 영위하는 귀촌의 증가를 의미함. 아울러 농촌으로의 영구 이주와 함께 도시와 농촌에서 다지역 거주를 희망하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보임. 다변화하는 도시민의 수요를 고려하여 농촌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귀농·귀촌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농업인들은 농촌 생활 여건이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 경영 여건과 관련하여 2021년 한 해, 코로나19 확산과 외국인 노동력 구인난으로 인해 일손 부족 문제와 농업 생산비 상승 문제가 특히 심화된 것으로 보임.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과 재배 여건 변화를 새로운 위협 요소로 체감하고 있어, 농업 부문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임.

03

농업·농촌 주요 이슈에 대한 인식

3.1. 농업 이슈에 대한 인식

2021년 농식품 주요 이슈로 도시민은 '농산물 가격 안정', 농업인은 '농민수당'을 응답

농업인은 '농민수당(기본 수당)'(36.2%), '자연재해(태풍, 장마 등)'(34.7%), '농산물 가격 안정'(28.4%), '공익직불제 실시'(26.3%) 등의 이슈에 관심이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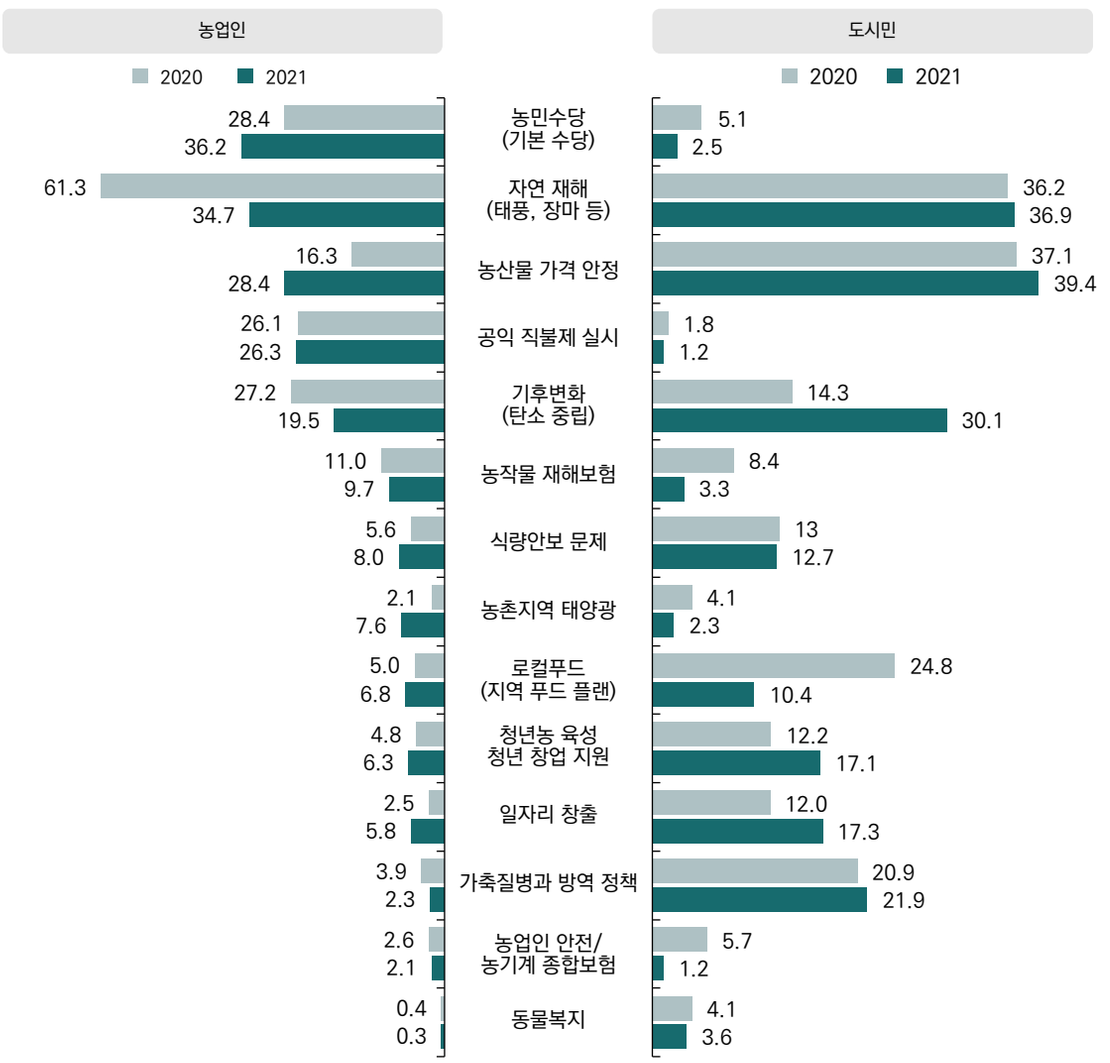
- 소득 및 경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슈 외에 '기후변화(탄소중립)'에 대해 관심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9.5%로 높게 나타남.
- 농업인은 전년 대비 '농민수당' 및 '농산물 가격 안정'에 대한 관심은 증가한 반면 '자연재해',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도시민은 올해 가장 관심이 많았던 농업·농촌 이슈로 '농산물 가격 안정'(39.4%), '자연재해(태풍, 장마 등)'(36.9%), '기후변화(탄소중립)'(30.1%) 등을 선택함.

- 소비자 입장인 도시민들에게 '농산물 가격 안정'과 '자연재해(태풍, 장마 등)'는 매년 관심이 많은 분야도 꼽히고 있으며, 올해는 '기후변화(탄소중립)'가 새롭게 주목받는 것으로 나타남.
- 도시민들은 '청년농 육성, 청년 창업 지원'(17.1%), '일자리 창출'(17.3%)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했으며, 이는 새로운 경제활동 공간으로서 농촌의 가능성에 대한 도시민들의 인식 전환을 보여줌.
-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은 작년 대비 감소한 반면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30.1%)은 전년(14.3%) 대비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15〉 2021년 농업·농촌 이슈 중 관심이 많았던 분야(중복응답)

단위: %



주: '기타', '모름/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1). 국민의식조사.

3.2.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한 농업인 인식

농업인 10명 중 8명, 현재 기후변화를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

현재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농업인 87.2%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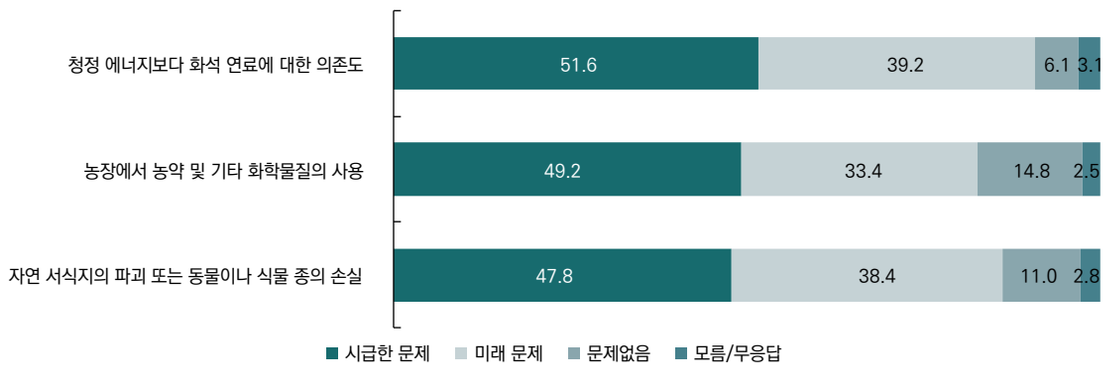
- 이 같은 의견은 60세 미만, 영농경력이 20년 미만, 영농 형태별로는 노지채소와 특용작물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농업인들은 농업·농촌의 '화석 연료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탄소중립 관련 시급한 문제로 인식

농업인은 농촌 지역의 '청정에너지보다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51.6%)를 가장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농장에서 농약 및 기타 화학물질의 사용'(49.2%), '자연 서식지의 파괴 또는 동물이나 식물 종의 손실'(47.8%) 순으로 응답함.

〈그림 16〉 농촌지역 탄소중립 관련 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식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1). 국민의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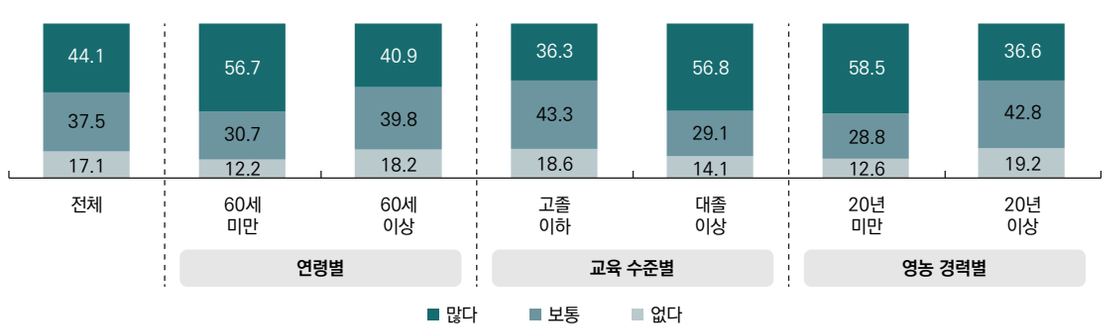
농업인 44.1%,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에 적극적 참여 의향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는 생산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농축산물에 대해 저탄소 인증을 부여하여 농가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윤리적 소비의 선택권을 제공하는 시장 기반형 감축제도임. 앞으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에 참여할 의향이 '많다'는 농업인은 44.1%, '없다'는 17.1%로 나타남.

- 참여 의향이 '많다'는 응답은 60세 미만, 영농경력 20년 미만인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17〉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 참여 의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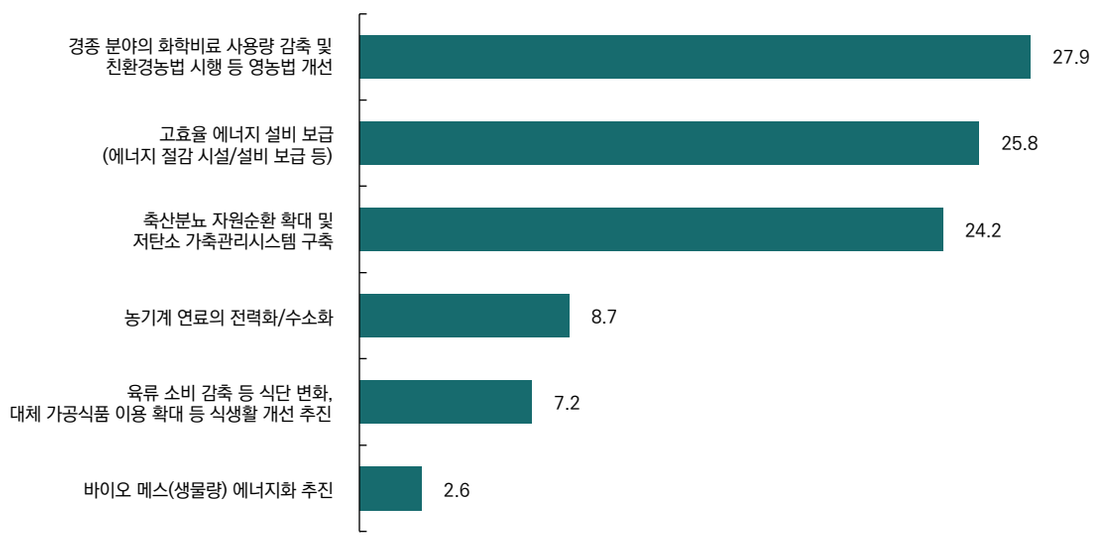
주: '모름/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1). 국민의식조사.

탄소중립을 위한 농업부문 실천 방안으로 '영농법 개선', '고효율 에너지 설비 보급' 꼽아

농업인은 농업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경종분야의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및 친환경농법 시행 등 영농법 개선'(27.9%)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고효율 에너지 설비 보급(에너지 절감 시설/설비 보급 등)'(25.8%), '축산분뇨 자원순환 확대 및 저탄소 가축관리시스템 구축'(24.2%) 등을 선택함.

〈그림 18〉 국내 농업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

단위: %



주: '기타', '모름/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1). 국민의식조사.

3.3. 농지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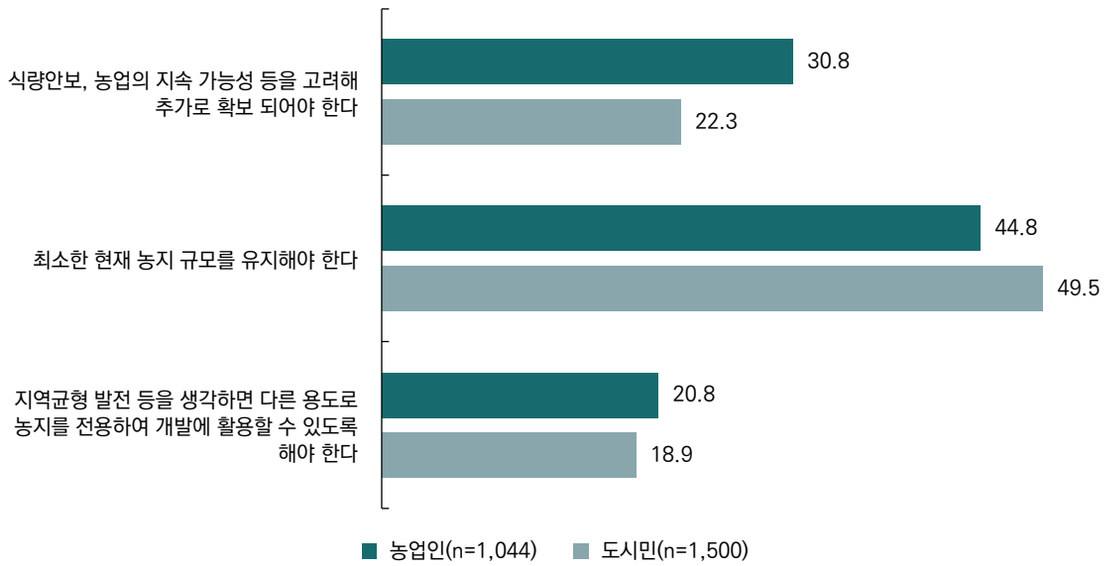
농지 보전 필요성에 대해 '최소한 현재 농지 규모 유지' 의견이 많아

농업인의 75.6%, 도시민의 71.8%는 최소 현재 규모 이상의 농지가 보전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함.

- 농지 보전 필요성에 대해 '최소한 현재 농지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농업인 44.8%, 도시민 49.5%로, 농업인에 비해 도시민의 지지율이 4.7%p 높았음.
- '식량안보, 농업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농업인 30.8%, 도시민 22.3%로 응답함.
- '지역균형 발전 등을 생각하면 다른 용도로 농지를 전용하여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농업인 20.8%, 도시민 18.9%에 불과함.

〈그림 19〉 농지 보전 필요성에 대한 도시민과 농업인의 견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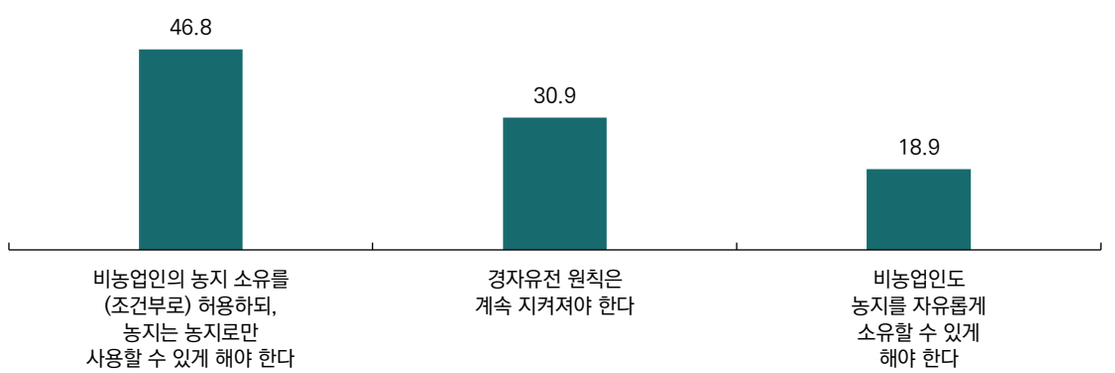
주: '잘 모르겠다', '기타', '모름/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1). 국민의식조사.

농지 제도의 기본 방향에 대해 농업인은 '농지농용 원칙' 꼽아

농지 제도의 기본 방향에 대해 농업인 46.8%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조건부로) 허용하되, 농지는 농지로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경자유전 원칙은 계속 지켜져야 한다'는 30.9%, '비농업인도 농지를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18.9%로 응답함.

〈그림 20〉 앞으로 농지 제도의 기본 방향에 대한 농업인 견해

단위: %



주: '잘 모르겠다', '기타' 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1). 국민의식조사.

3.4. 시사점

2021년 도시민들은 농식품 물가를 가장 중요한 이슈로 선정함. 앞서 살펴보았던 농업인들의 생산비 상승 이슈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임. 코로나19를 비롯한 대내외 경제 상황 변화로 인해 물가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2022년에도 여전히 도시민·농업인 모두에게 관련 이슈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됨.

2021년에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의 '자연재해'와 '기후변화'를 중요한 이슈로 인식함. 농업인들은 '기후변화' 이슈와 관련하여 영농활동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해결을 위한 노력에 참여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영농 방식 및 농촌 생활 환경, 도시민·농업인의 인식 변화를 위한 실천 노력이 요구됨.

농지 문제와 관련하여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농지의 고유한 기능을 우선시하여 현재 규모 이상의 농지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음.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보전하기 위한 농지 관리체계가 수립·운영되어야 할 것임.

부 록
조사 개요 및 방법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매년 말 여론조사를 통해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와 정책 현안에 대한 견해를 조사하여 연구에 활용

2021년 11월 19일부터 12월 17일까지 농업인 1,044명과 도시민 1,500명 등 총 2,544명을 대상으로 조사[1)]

- 농업인과 도시민의 의식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고정 문항과 정책 현안 등을 포함한 비고정 문항으로 구성하였음.
- 이 자료는 조사 내용 가운데 주요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본보고서를 참조 바람.

〈부표 1〉 조사 대상 및 설계

구분	농업인	도시민
조사 대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전국 도시지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조사 지역	전국(제주 포함)	전국(제주 포함)
표본 크기	1,044명	1,500명
조사 방법	우편조사	가구 방문 면접 조사
표본 추출 방법	전국 읍면 농가	지역/성/연령별 할당 표본 추출
표본오차(95% 신뢰 수준)	고정 표본 사용	± 2.5%p
조사 수집도구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1) 농업인은 연구조사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과거 조사연계 등을 고려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는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도시민은 조사전문기관인 ㈜칸타퍼블릭에 의뢰해 일반적인 사회조사 표본 추출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음.

참고문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2020. 국민의식조사.

KREI 농정포커스

감 수	성주인 선임연구위원	061-820-2199	jiseong@krei.re.kr
내 용 문 의	정도채 연구위원	061-820-2107	dcchung@krei.re.kr
발간물문의	유정인 선임전문원	061-820-2282	edela@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농정포커스 제203호

2021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22. 1.
발 행 인	김홍상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I S S N	2672-0159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